

5대 적멸보궁 심보일배로 순례

부산 불광사 보광 스님 대장정 올라

부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1월 1일 오전 10시 불광사 법당에서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 입재식을 갖고 5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1월 1일 불광사를 출발해 양산 통도사, 태백 정암사, 영월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순으로 심보일배 사, 설악산 봉정암 순으로 심보일배 기도를 하며 약 5개월에 걸쳐 순례기도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이날 입재식에는 불광사 회주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인산 스님, 성전선원 정도 스님, 설동근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산 스님은 "인간은 머리를 하늘을 향해 꼴딱이 들고 있는 자만한 존재인데 절은 하심을 돕는 수행"이라며 "자칫 무릎을 다칠까 걱정되지만, 심보일배 순례

기도를 통해 전 국민이 어려운 이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설동근 회장이 "새해 첫날 출발하는 순례인 만큼 우리나라 모든 이들의 서원을 담고 원력을 세우셔서 원만 회향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길을 떠난 지 5일째인 1월 6일 첫 번째 적멸보궁인 양산 통도사에 도착해 참배를 하고, 현재 국도를 따라 강원도 태백 정암사를 향하고 있다. 스님은 매일 오전 8시 길에 올라 9시 30분부터 여건 없이 사시에불을 드린 후, 해가 저무는 오후 5시까지 심보일배로 2번째 적멸보궁을 향해 걷고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가 시작됐다. 불광사 보광 스님은 5개월 동안 심보일배로 순례를 한다.

있다. 특히 국도를 따라 심보일배를 하는 스님의 안전을 위해 불광사 승합차 1대와 현지 경찰차 4대 에스코트를 하고 있다. 한편 보광 스님의 대참회순례기도에 동참하려는 인근 지역민 및 신행단체 등의 구경객 참여 문의가 많다. (051)809-1420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첫 발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식서 창립기념법회 봉행

2009년 부산불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는 1월 5일 오후 3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신년하례회 및 불교연합신도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는 스님, 수석부회장 영재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및 허남식 부산시당, 제종모 시의회위원장,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해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본 행사는 발원문, 신년하례, 경과보고, 2009년 비전제시, 신년사, 임명장 수여 및 회기전달, 봉행사, 축사, 감사패전달, 신년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국제영산마루 공연단의 국악난타 축하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여는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부산불교가 부산불교연합회와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

전해, 부처님의 맑은 법음으로 부산 시민 모두의 마음이 때 묻지 않는 연꽃처럼 청초한 한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부산 15개 종단, 신중 대덕스님 모두 힘을 모아 금년을 부산불교 발전 중흥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부산 불교연합신도회의 창립기념법회가 함께 마련돼 더욱 뜻 깊다. 연합신도회 설동근 초대회장은 봉행사에서 "승가는 불교연합회, 재가는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부산 불교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소중한 연동불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들 두 단체는 2009년 희망의 새해비전으로 △승가와 재가의 대동단결로 화합의 기축년 △세계계연 등 축제와 세계불교문화엑스포 발판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불교문화축제의 완성 △교구관수호의 역량 강화 △한국불교 중심도시 부산의



1월 5일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위), 정여 스님에게 불교연합신도회장 임명장을 받는 설동근 교구장.

위상정립을 위한 포교,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분야에서 앞서가는 부산 불교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와 연합신도회는 1월 12일 한나라당부산시당과 함께 불합리한 불교관련 규제법안의 개정 등을 위한 대담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박지원 기자



박지원 기자

영담·원허 스님 계맥 이어 쌍계사 고산 스님 전수해



1월 4일 하동 쌍계사 팔영루에서 고산 스님(오른쪽)은 영담·원허 스님에게 계맥을 전수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이 제자들에게 계맥(戒脈)을 전수하는 전계식이 1월 4일 하동 쌍계사 팔영루에서 열렸다. 전계법회는 스승으로부터 계를 전해 받으며 율사(律師)임을 공인받는 자리이다.

이날 전계제자는 2명으로, 고산 스님은 부친 석왕사 영담 스님, 부산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에게 각각 계를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일산불교병원 워크숍 마하병원 위크숍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진호)과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마하병원(진료원장 신동훈)은 1월 10일 수안보 성시파호텔에서 공동 워크숍을 열고, 최신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등 불교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권범선 동국대 재활의학과교수가 '동국대병원-마하병원 활성화 및 재활병원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주제로 두 병원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동국대 일산병원의 박일형 물리치료사, 최보은 작업치료사, 이인화 언어치료사와 마하병원의 백정진 물리치료사, 한우리 작업치료사가 최근 재활치료 의료기법 현황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마하병원은 2007년 5월 의료협력체를 체결한 후 2008년 1월 제1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지원 기자

자비의 쌀 100가마 전달

영도 백련사 영도구청에 보시

부산 영도 백련사(주지 혜주)는 1월 3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도구 지역에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보시한 쌀은 모두 100가마로, 외부 후원금 없이 백련사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주지 혜주 스님은 "신도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쌀을 전하고자 제안했더니 이렇게 100가마가 모였는데, 다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은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시한 쌀은 영도구청을 통



백련사 신도들은 주지 혜주 스님과 함께 불우이웃을 위해 쌀을 모았다.

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백련사는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불우한 지역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랑 담긴 떡국 드세요”

부산지역 복지관서 떡국 나눔 이어져

“사랑이 듬뿍 담긴 떡국 드시고 힘내세요!” 설날을 앞두고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에서 잇달아 마련된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명자, 051-265-9471)은 1월 23-24일 ‘명절맞이 설음식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다대4지구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100세대에게 떡국뿐만 아니라 과일, 약과, 떡, 제수음식 등 설음식을 나눠줄 예정이다.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일규, 051-264-9033)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복지관 내 및 다대1동 물운대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노인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100세대를 선정해 떡국용 떡과 생필품

을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유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051-628-6737-9)은 22일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의 일환으로 떡국거리 나누기 및 희망의 장학금 지원 행사를 마련한다. 지역 독거어르신과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총 400세대에 떡국거리를 제공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원형, 055-221-8445)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2009 새해맞이 희망의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22일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총 55세대를 선정해, 떡국떡 1kg, 목살 220g, 만두 1kg, 사골곰탕 1kg 등으로 구성된 떡국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시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해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원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원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델, 여관, 병원, 약국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가원, 복권점,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재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려 부처님 이마에 정안하는 보석으로 어둡고 고통

특별선물 : 단주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조용히 지나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

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작성글씨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당되는 분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작성제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리드려108염주와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